세종소방본부 시민 생명 지킨 구급대원 포상했다

세종소방본부가 18일 '제2회 구급대원 최고 영예상' 시상식을 열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헌신한 우수 구급대원을 선정해 포상했다. 구급대원 최고 영예상은 현장 대원의 구급활동 전문성과 사명감을 높이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세이버영웅 ▲구급정책영웅 ▲차세대영웅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세이버영웅에는 우수한 현장 대응 실적을 인정받은 세종남부소방서 소방사 김성찬 대원이, 구급정책영웅에는 정책·행정 분야에서 공적을 인정받은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위 강상모 대원이 선정됐다.

또, 차세대영웅에는 성실한 현장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사 장동훈 대원이 이름을 올렸다.

세종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대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지닌 구급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체계적인 구급 조직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태원 소방본부장은 "자긍심을 갖고 현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두마면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응원주간' 운영해

계룡시는 지난 12일부터 '두마면 응원주간'을 운영하며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요 발전 거점을 점검하는 마을속속 응원데이(ONE-DAY 열린시장실)를 진행했다.

이번 응원주간은 계룡시의 뿌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두마면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시 확장과 생활권 변화를 기반으로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응우 시장은 응원주간 동안 대실지구의 주거 및 상가 밀집 지역과 농소천 산책길 등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방문했다. 주차 여건과 보행자 안전, 편의시설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시는 신호체계 개선을 포함한 교통 여건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계고택과 사계관광문화마을 예정지, 두계장터를 차례로 둘러보며 도시의 문화적·역사적 자원을 관광산업으로 연계하는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어 계룡시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산업단지 로드체킹도 이어졌다. 입암산업단지를 지나는 대전~논산간 국도 공사현장, 임시주차장, 지식산업센터와 지능형센서 스핀온(Spin-On) 지원센터 부지 등을 직접 둘러보며 기존 기업의 운영 여건과 신규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세종자치단체 공동노력으로 실현해야

시도지사협의회 제18대 임원단 간담회 참석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 지원 요청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8대 임원단 간담회에서 국정과제이자 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의 조속한 세종 이전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협의회 임원단이 참석, 올해 운영 성과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협의회 사무처 세종 이전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국정과제에 이름을 올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가 함께 뜻을 모아준 덕분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협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의 세종 이전에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는 지난 2023년 4월 주 사무소를 세종시에 위치한다는 정관 개정에 따라 세종 이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최민호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의 국가균형발전 상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무처의 세종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세종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방 재정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과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설립된 17개 광역시도 간 협력체로, 최민호 시장은 지난 1월부터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가 18일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본부로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채봉 기자

SW중심대학사업단과 상생 업무협약 체결

대전 중구–충남대, 공직자와 중구민 대상 SW·AI 확산으로 지역 미래역량 강화

대전 중구는 18일 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단장 김종익)과 지역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여 공직자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의 디지털·AI 기초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AI 기반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직자 역량 강화, ▲중구민 대상 AI 기초역량 강화를 핵심 협력분야로 설정하였으며,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교육·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AI 기반행정 전환을 위해 중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이해, 데이터 활용, 행정업무 적용 사례 중심의 교육과정 등을 공동 기획·운영하여 디지털 행정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구민을 대상으로 한 AI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시니어, 청소년,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AI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미래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김종익 사업단장은 "대학이 보유한 SW·AI 교육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대학의 전문성과 지역행정이 결합한 의미 있는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연구, 행정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장애인 슐런팀 '대전 호크아이'를 지원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취업 연계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지원은 장애인 스포츠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중구는 총 1,6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투입했다.

슐런은 보드 위에서 퍽을 밀어 구간을 통과시키며 점수를 획득하는 스포츠 종목으로, 신체적 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도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재활 및 사회 참여 효과가 큰 것이 특징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며, 슐런 보드, 테이블, 의자 등 노후 장비를 교체·수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채봉 기자

도립파크골프장 시범운영에 돌입

동물위생시험소 초지 활용해 생활체육 거점 조성

충청북도는 18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414-41번지 일원에 조성한 '충청북도 도립파크골프장'의 개장식을 열고 1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충청북도 도립파크골프장은 기존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가용 초지를 활용해 조성된 생활체육 시설로, 도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공자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지속 가능한 체육 인프라 모델로 구현했다.

개장식에는 충북도지사, 도의회 의원, 체육회 및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장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환담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시타 행사 △동행 걷기 순으로 진행됐다. 도립파크골프장은 하천변 위주의 기존 파크골프장과 달리, 여름철에도 상시 운영이 가능한 입지 여건과 체계적인 시설 구성을 갖춰 도민 누구나 사계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본 시설은 총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해 조성되었으며, 부지면적은 70,722㎡(약 21,730평) 규모로, 주요 시설로는 파크골프장 45홀, 클럽하우스, 관리동, 화장실 2개소, 주차장 142면 등이 설치되어 이용객의 편의성과 휴식 기능을 함께 갖춘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됐다. 18일 개장식 후 오는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는 시범운영되고 운영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잔디 보호를 위해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장한다.

이용 대상은 충북도민으로 한정으로 시범운영 기간에 한해 이용요금은 무료다. 충북도는 이번 개장을 시작으로, 2단계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등 단계적인 시설 확충과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 규모 대회 개최가 가능한 명품 파크골프장으로 육성해 체육과 관광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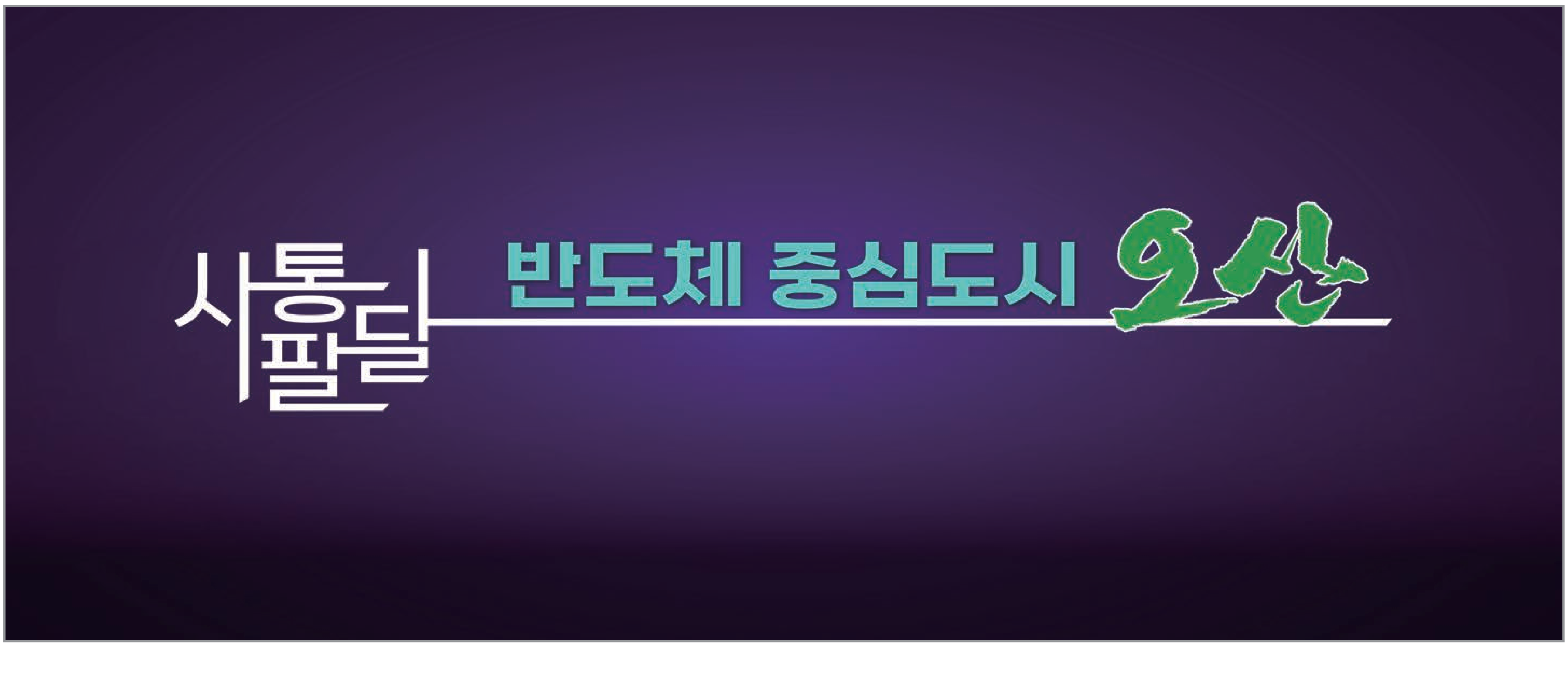
충남 응원한 '라오스 아이들의 꿈'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라오스 출장 첫 일정으로 17일 비엔티안 시코타봉구 앙야이마을 앙야이초등학교를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펴고 있는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와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해외 자원봉사 활동 모델 구축, 국제 자원봉사 활동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앙야이초등학교에서 노후 시설 개보수 및 건물 페인트칠, 책걸상 수리, 망고나무 식재 등의 봉사 활동을 펼쳤다. 봉사 참여 인원은 도 자원봉사센터 장영기 이사장과 오선희 센터장, 시군 센터장과 임직원 등 28명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한 뒤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도·시군 자원봉사센터의 앙야이초등학교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준공식과 나눔바자회 행사에 맞춰 라오스에 도착하자마자 현장을 찾았다.

이 행사에는 앙야이초등학교 학생, 마을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나눔바자회는 국내에서 마련한 학용품과 유명 브랜드 새 옷 300벌, 리사이클링 가방 등을 학생들을 비롯한 현지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도와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또 앙야이초등학교에 선풍기와 축구공, 공용 학용품을 전달하고, 교정에 망고나무도 식재했다. 김 지사는 자원봉사 참가자들을 격려한 뒤, 학교 건물 페인트칠 작업 마무리, 망고나무 기념식수 등을 가졌다. 김 지사는 "라오스와 거리는 멀지만, 형제의 나라처럼 생각하고 우호 협력을 지속, 매년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줄 것"을 도와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